

星湖文學研究 I

鄭 大 林*

一. 序

星湖 李瀆은 朝鮮後期の 부패하고 피폐된 사회상태를 예리하게 관찰·비판하고, 당면한 여러 문제에 관하여 자신의 포부와 이상을 구체적인 방책으로 피력하여, 새로운 經世致用的 학풍을 이룩한 학자다. 그리하여 既往의 星湖研究는 정치·경제·사회·역사·철학 등의 면에서, 사상이나 또는 실학자로서의 그의 면모를 찾는 데 그치고 있다.¹⁾

本稿에서는 이러한 사상적 측면에서의 연구를 지양하고, 星湖文學의 면모를 살핌으로써 해서 文人 또는 文學批評家로서의 그의 위치를 뚜렷이 밝혀 보고자 한다. 특히 星湖의 文學世界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그의 詩論과 詩評의 諸樣相을 고찰하는 것이 本稿의 目的이다.

지금까지의 古典詩學研究는 자료의 정리를 중심으로 하는 文獻學的 研究와, 방법론의 모색과정인 方法論的 研究, 그리고 中國詩學과의 比較文學的 研究 등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한편으론 古典詩學의 전체적 흐름을 파악하고자 하는 詩學史的인 研究도 있었다.²⁾

때문에 本稿는, 星湖의 詩論과 詩評의 諸樣相을 구체적으로 연구·검토함으로써, 古典詩學의 면모를 확충·보완하는 작업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는 메시지도, 그 의의를 인정받을 수 있으리라고 본다.

* 人文大 助教(博士課程, 國文學 專攻)

- 1) 이 방면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韓治欣 교수의 「李朝後期の 社會와 思想」(乙酉文化社, 1976)을 들 수 있다.
- 2) 詩學史的 研究란 全盛大·鄭堯一·崔雄·鄭大林的 共著인 「韓國古典詩學史」(弘盛社, 1979) 등을 일컫는다.

1. 星湖의 生涯와 文學

星湖 李瀾의 本貫은 驪州이고, 字는 子新이며, 京畿道 廣州 瞻星里에 거주하였으므로 스스로 星湖라고 號하였다. 그의 祖父 李志安은 司憲府 持平, 父親 李夏鎭은 司憲府 大司憲으로서 전통적인 南人의 세도 집안이었다. 肅宗 6年(1680年)의 庚申大黜陟의 政變으로 말미암아 老論 일당들의 세도에 물려 許穆을 영수로 한 南人들의 세도가 무너지자 그의 父親은 平州牧使로 좌천되었다가 平安道 雲山郡으로 流謫되었다.

星湖는 이 謫所에서 1681年 11月 17日(음력 10月 18日), 부친의 後妻인 安東 權氏의 몸에서 태어났다. 그 다음해에 부친이 별세하고 偏母膝下에서 자라나면서 仲兄인 李潛(號 刻溪)에게서 학문을 배웠다.

그러다가 肅宗 31年(1705年)에 仲兄 李潛이 당시 집권층인 老論의 횡포에 대한 것을 上疏한 까닭에 鞫問 끝에 목숨을 잃었다. 그 후 과거에의 뜻을 버리고 季兄인 玉洞 李瀾와 從兄인 素隱 李況을 좇아 修身의 學德에 전심하였다. 肅宗 41年(1715年), 그의 나이 35세 때에 모친의 喪을 당하고, 門中의 家藏什器를 宗家로 돌려보내고, 三年喪을 마친 후 부터는 후배의 교육에 종사하였다.

英祖 3年(1727年)에 조정에서 繕工監 假監役이란 職으로 불렀으나 사절하였으며, 英祖 39年(1763年)엔 83세의 노령으로 국가의 優老例典에 따라 兪知中樞府事로 陞賚의 恩典을 입었으나 그해 12月 17日에 세상을 떠났다.

초야의 학자로서 절약과 검소를 생활의 신조로 삼고 청렴결백한 생활을 하면서 평생을 학문에 몸바친 그는 家藏書를 토대로 儒敎의 古典과 性理學을 섭렵하고, 李滉의 학문에 경도하였다. 그러나 그는 性理學의 空理空論과 權威主義를 극복하고, 柳馨遠의 實用學을 계승하여 實學이라는 새로운 學風을 열었다. 그의 學問의 요체는 實事求是로서, 역사와 현실을 이해하고 나아가서 사회를 개혁하자는데 있었다. 때문에 李珥

와 柳馨遠을 가장 실용적 학문에 뛰어난 학자로 생각하여³⁾, 그들이 당시의 사회현실을 올바르게 인식·비판하였던 높은 식견과 포부로서 어지러웠던 나라 일을 능히 바로잡을 만한 사람들이었으나 현실의 제약에 눌려서 실시되지 못하거나 헛되이 쌓여서 묻혀버리고 만 것을 한탄하였다.

또한 그의 폭넓은 학문의 영향은 직접적으로 아들 孟休와 손자 九煥, 그리고 조카 秉休·用休와 종손인 森煥·家煥·重煥에 미치었으며, 특히 孟休와 秉休는 經學, 家煥은 西學(科學), 重煥은 地理學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의 문인들 중에는 歷史에 安鼎福, 地理에 尹東奎, 算學에 愼後聯·黃得甫 등이 영향을 받았고, 그 외에도 李學遠·李基讓·權哲身·權日身 등에게도 영향을 미쳤는데, 그의 학문은 茶山 丁若鏞에 이르러 集大成되었다고 할 수 있다.

文人으로서의 星湖를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그의 文學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星湖의 문학작 변모는 70卷 36冊의 星湖先生全集과 百科事典式 著書인 星湖傳說에 잘 나타나 있다. 星湖先生全集에는 모두 31類의 文體로써, 1178首의 詩를 비롯하여 序·記·跋·書·說·辭·賦·論·傳·樂府·雜著 등의 많은 작품들이 실려 있는데, 이들은 文學의으로 검토되어야 할 가능성이 충분한 작품들이다. 특히 詩卷에 포함되어 있는 海東樂府 119首는 上古로부터 高麗朝에 이르기까지의 우리의 역사·민속·설화·지리 등에서 취한 내용들이 중심인데, 篇마다 自序가 붙어 있다. 兜率歌·會蘇曲·萬波息曲·花王歌·處容歌·天官怨·黃鳥歌·井邑詞·伐谷鳥辭·瓜亭曲·花郎歌·大同江·流頭飲 등 우리가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인 바, 星湖의 역사에 대한 관심도를 살펴볼 수 있을 뿐 아니라, 高麗 益齋 李齊賢에서 비롯된 小樂府 형태로 지어 우리나라 樂府體의 연구에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라

3) 國朝以來識務 惟李栗谷柳磻溪二公在(星湖傳說類選, 卷三·下, 人事篇四, 治道門一, 變法條)

고 생각된다. 또한 星湖僿說 30卷中, 詩文門 3卷에는 詩論과 詩評을 포함한 광범위한 文學論이 전개되고 있어서, 批評家로서의 그의 면모를 살피기에 충분하다.

2. 資料의 概觀

星湖의 詩論과 詩評을 검토하기 위한 자료는 星湖先生全集과 星湖僿說이 중심이 된다. 특히 星湖僿說의 詩文門 三卷은 詩話로서의 性格을 갖추고 있어서, 詩文學評論書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지니고 있다.

지금까지의 詩學研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은 詩話였다. 詩話는 詩論·詩評·詩作法 등의 구체적인 전개와 詩에 얽힌 閑談 등을 포함하여 詩에 관련된 雜記를 총칭하여 이르는 것인데, 이는 宋 歐陽修의 六一詩話에서 그 체제가 갖추어져 성형하게 되었다.

宋과의 文化的 交流에 의한 詩話의 영향으로 高麗에도 李奎報의 白雲小說, 李仁老의 破閑集, 崔滋의 補閑集, 李齊賢의 櫟翁稗說 등의 詩話集이 등장하였다.

朝鮮朝에 이르러 徐居正의 東人詩話를 비롯하여 많은 詩話가 나타났으며, 특히 宣祖·光海朝에 극성하였는데, 朝鮮後期에 이르러서는 비록 洪萬宗의 詩話叢林과 같은 詩話의 叢集이 나오기는 했어도, 詩話는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 비교적 後期の 詩話로 編者를 알 수 있는 것은 詩話叢林에 실려 있는 金得臣의 終南叢志, 南龍翼의 壺谷詩話, 任望의 水村漫錄, 任璟의 玄湖瑣談, 그리고 洪萬宗의 小華詩評, 洪重寅의 詩話彙成, 徐湄의 靑邱詩話 등이다. 그 외 編者未詳의 小華詩評, 東國詩話彙成, 海東詩話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後期詩話들은 그 內容이 대개 前代詩話의 轉寫나 抄錄을 中心으로 하여서, 독창적인 내용은 부족한 형편이며, 체제에 있어서도 별다른 특징이 없다. 따라서 詩話集으로서의 文學的 가치도 떨어진다고 하겠다.

여기서 星湖僿說·詩文門의 특징을 몇가지 들어보기로 하겠다.

첫째, 詩話集으로서의 변모를 완전히 갖추고 있다.

둘째, 내용이 독창적이다. 물론 내용의 전개에 있어서 前代詩話나 다른 文人들의 說을 인용하기도 하였지만, 소재의 선택이나 내용의 전개 방식에 있어 자신의 비평정신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으며, 논리 정연한 주장을 내세우기도 하였다.

셋째, 내용의 考證에 주력하고 있다. 세상에 訛傳되고 있는 것이나, 校勘이 잘못된 것, 그리고 미처 詳考되지 않는 것 등을 考證하여 후일의 참고가 되게 하려는 의도가 전편에 흐르고 있다. 그리고 확실한 고증을 할 수 없는 것은 異說을 종합하거나 의문을 남겨 두어 後學의 참고를 바라는 학문적 태도를 나타내주고 있다.

이와같이 星湖德說·詩文門은 詩話集으로서 손색이 없으며, 詩話가 쇠퇴한 시기에 몇 되지 않는 詩話集의 하나라는 점에서도 가치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本稿에서는 星湖德說·詩文門과 星湖先生 全集에 나타나 있는 序·跋·書 등을 중심으로 星湖의 詩論과 詩評의 樣相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二. 本質論

詩의 本質은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한 星湖의 견해는, 詩의 效用性を 바탕으로 하는 社會風敎에 그 根本을 두고 있다. 이는 載道的 文學觀에서 이루어진 傳統的 詩觀이기도 하다.

典型的 道學家이며 宋學의 鼻祖인 周敦頤에서부터 展開되어 程伊川·朱子를 거쳐 확립되기에 이른 朱子學的 道德主義 文學觀이 곧 載道的 文學觀인데,⁴⁾ 이는 效用論의 측면에서 文을 政治·外交 및 敎化의 수단으로 보고, 文을 通하여 經國濟世를 실현하고자 하는 현실참여의 의지를 반영해주는 實用的 文學觀으로서,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高麗를 거쳐 朝鮮朝에서 朱子學을 政治哲學으로 받아들이며서부터 兩

4) 車相權: 中國古典文學評論史(汎學圖書, 1975), p. 276. 참조.

班官僚階層의 文學觀으로 확고히 자리 잡은 후, 朝鮮時代의 지배적인 文學觀으로 이어져 내려 왔다.

이러한 文學觀 아래서 溫柔敦厚한 性情의 함양으로 情緒를 醇化하고, 詩의 教化 곧 詩를 통한 인간의 교육과 사회 정화 및 정신적 교화를 이루고자 하는 功利的·效用論的 詩觀은, 中國이나 우리나라를 막론하고 뿌리 깊게 이어져 내려 왔으며 星湖 역시 詩의 本質을 인간의 教化를 위한 詩機能의 측면에서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詩라는 것은 가르치기 위한 것이니, 힘써 뜻을 전달해야 하는데, 내용이 간략해야만 이루어진다. (中略) 날로 점차 본래의 뜻에 어긋나서 의미는 더욱 교묘해지나, 가르침은 더욱 잘못되고 있다.⁵⁾

詩文을 짓는 것은 세상을 教化하기 위한 것이다.⁶⁾

後世의 詩文 따위는 모두 다 세상을 教化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⁷⁾

이와 같이 星湖는 詩를 세상을 教化하기 위한 수단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당시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 모순을 바로 잡기 위해 社會改革 意志를 강력히 내세웠던 星湖에게 있어서는 어찌먼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른다.

그는 그의 文集에서,

내 몸이 비록 시골 구석에 있으나 周公과 孔子의 道를 좋아하니 참으로 나를 起用한다면 更張을 하는 것이 古今의 儒術의 所願이다.⁸⁾

라고 하여 社會의 更張이 그의 학문의 목표임을 밝혀주고 있다. 이로 볼 때 詩를 教化의 수단으로 파악하는 그의 견해는 자신의 사상이 그대로 반영된 詩觀이라 하겠다.

5) 詩者教也 務在達意 惟簡乃成(中略) 日漸背于本旨 意益巧 而教益淪矣(星湖先生全集, 卷五十, 石隱集序)

6) 詩文之設爲世教也(星湖先生全集, 卷五十, 悔軒雜著序)

7) 後世詩文之類 率皆無裨於世教(星湖憶說, 卷三十, 吊古戰場文)

8) 雖然身居陴側 悅周公仲尼之道 苟有用我舉以措之 此古今儒術之願也(星湖先生全集, 卷四十六, 論更張)

다시 말해서 그의 목표인 治國의 道를 실현하고 社會를 更張하는 데 있어서, 백성을 教化하기 위한 수단으로 詩는 그 存在價値를 가진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歷史를 통하여 보면, 나라가 어지럽고 社會가 혼란에 빠져 있을 때, 뜻 있는 文人들은 載道的 文學觀을 더욱 강조하였고, 그에 따라 詩敎를 이루기 위한 風敎의 詩觀을 강하게 내세웠다. 구태여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樣相을 찾아 볼 수 있는 바, 가장 最近世의 詩話라고 할 수 있는 「天喜堂詩話」⁹⁾에 나타난 詩觀이 바로 그것이다.

1905년 乙巳保護條約이 締結되고, 日本에 의한 保護政治 및 統監政治가 실시되어, 軍事·外交權마저 剝奪당하였던 우리 민족의 수난의 時代를 배경으로 하여, 1909년 11월 9일부터 1909년 12월 4일까지 17회에 걸쳐 大韓每日申報에 연재되었던 「天喜堂詩話」에는 다음과 같이 강한 風敎의 詩觀이 나타나 있다.

詩란 者는 國民言語의 精華라. 故로 強武호 國民은 其詩부디 強武호며 文弱호 國民은 其詩부디 文弱호나니¹⁰⁾

自來泰東人은 詩人의 地位를 低層호야 是가 風化에 無關호며 政敎에 無關호고 但只 黃葉村席門中에서 虫鳴蛙叫호는 一個世外藥物로 知호니 嗚呼라 此는 誤解의 大誤解로다¹¹⁾

이와 같이 詩를 國民言語의 精華로 파악하고, 詩가 강해야 國民도 따라서 강해진다고 하였으며, 詩가 風化나 政敎와는 관계없이 吟風弄月하는 정도의 것으로만 알고 있음은 〈誤解의 大誤解〉라고 하였다. 百尺千

9) 丹齋 申采浩의 遺胤 申秀凡씨가 오랜 기간에 걸쳐 大韓每日申報을 閱讀하며 先考의 全集을 新增 補遺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해낸 詩話다. 任重彬씨가 「丹齋의 狀況文學論」(한국문학, 1977년 9월호)이란 글에서 그 論調나 語彙의 同一性에 근거하여 丹齋의 詩話로 단정하고 있으나, 각자 문제는 앞으로 더욱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10) 大韓每日申報, 1909. 11. 11.

11) 大韓每日申報, 1909. 12. 4.

頭에 선 나라의 운명과 民族의 悲劇을 실감하면서, 절실하게 주장하고 있는 風敎의 詩觀이라 할 것이다.

그러면 星湖가 활동했던 時代를 보자.

壬辰倭亂(1592~8年)과 丁卯(1627年)·丙子(1636~7年)胡亂의 慘劇을 겪은 후의 朝鮮後期 社會는 실로 政治·經濟·社會 각 방면에 걸쳐 혼란이 극도에 달하여, 兩班官僚社會의 질서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倭亂과 胡亂의 전쟁 중에 겪었던 財政難은 전후에도 계속되어 戰火로 인한 농촌의 황폐와 국가 질서의 문란을 틈탄 官吏·土豪들의 부정행위가 늘어나고, 軍備의 확장과 施設의 복구로 王朝의 財政은 더욱 곤궁하게 되었으며, 과중한 賦役·貢納·稅納으로 인한 농민의 農土離脫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국가의 政治·經濟·社會의 전체적 질서의 혼란과 붕괴는 내부에 있어서 各方으로 불안과 갈등을 초래하여, 官紀의 解弛·社會體制的 문란·道義의 頹廢·民生の 窮乏·불평의 蔓延 등으로 지배계급의 분열과 충돌이 격심한 것은 물론, 一般 民衆의 생활은 극도로 곤궁한 위에 災害가 연속하여 流亡民과 도적과 飢餓와 民亂은 그칠 사이가 없었으니 그야말로 혼란의 연속이었다.¹²⁾

이와 같은 혼란과 변화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星湖는 당시의 현실의 모순을 바로 잡기 위해 社會改革意志를 앞세워 更張을 역설하였던 바, 詩에 있어서는 백성들을 敎化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詩를 내세워 風敎의 詩觀을 주장하였으니, 이는 文以載道の 文學觀의 소산이며 星湖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의 결과이다.

그리하여 星湖는 결국 詩의 本質을 效用論의 측면에서 社會敎化을 위한 수단으로 파악하는 한편, 社會를 更張하여 儒學의 道가 실현될 수 있는 社會를 이룩하는 것을 그의 학문의 목표로 지향하였다고 하겠다.

12) 震檀學會：韓國史，近世後期篇(乙酉文化社，1974)，p. 151 참조.

三. 作詩論

詩를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문제 곧 詩創作의 실제에 있어서의 表現方法에 대한 星湖의 견해는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물론 韓國 漢詩의 전통이 中國의 영향에 의한 것이며, 그에 따른 詩論 역시 中國의 영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때, 다음의 견해들을 星湖만의 독창적인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그 나름대로 논리를 전개하면서 자신의 詩論으로 소화하고 있음으로 해서, 그가 특히 강조하였던 表現技巧上的 문제들을 검토하려는 것이다.

1. 表現・修辭

詩에 있어서 表現・修辭의 문제는 詩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다. 星湖는 表現의 寫實性和 繪畫性 그리고 描寫의 具體性 등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文은 鄉社의 畫師가 실지의 물건은 보지 못하고 단지 傳模만을 의방하여 비슷하게 복숭아나무에다 버드나무 가지, 살구나무 잎, 아가위나무 꽃을 그려서 圓精가 실지와 틀리고, 丹雘이 표준이 없으므로 결국 무슨 물건인지 알 수 없는 것과 같다.¹³⁾

이렇게 詩人의 직접 경험이 寫實的으로 表現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想像的이거나 誇張的인 表現은 배격하고 있다. 그리하여 文을 樹木에 비유한다면, 첫 여름에 꽃과 잎이 극히 무성하여 한 가지도 말라 붙은 것이 없이 모두 찬란해서 보기 좋은 것과 같은 생생한 맛이 있는 文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바로 表現의 繪畫性和 통하기도 하는데, 星湖는 그 중에서도 視覺的인 詩의 效果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13) 我東之文 如鄉社畫師 不見其物 但憑傳模 依備彷彿 桃身柳枝杏葉棠花 圓精 違眞 丹雘無準 不審其何物也(星湖懷說, 卷三十, 古今文章)

靑·赤·白·黑은 東西南北 四方의 正色으로 빛나고 비쳐서 눈을 현란하게 하는데, 詩家들이 가져다 광채를 증가시킨다. (中略) 杜甫의 詩에 “江이 파라니 새 더욱 희고, 산이 푸르니 꽃이 볼 볼는 듯하구나”라고 한 것은, 靑과 白이 靑과 靑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 광채와 색태가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는데, 이것이 造語의 妙이다. (中略) 蘇東坡의 詩에 이르러는 “봄 물의 갈대 등결에 학이 홀로 서 있고, 석양의 단풍 잎에 갈가마귀 번득이네”라고 하였으니, 여섯 가지 물건을 합쳤으나 그 색태를 드러내지 않았으니, 더욱 정밀한 磨琢을 보겠다. 이는 곧 暗謎의 類이다.¹⁴⁾

이와 같이 광채와 색태가 주는 視覺的인 詩의 效果를 강조하고 있다. 金玉·花鳥·錦繡·雲霞 등의 것들을 이용하여 粧點해서 색태를 돋보이게 한 詩들을 읽으면 자연 마음이 명랑해지고 눈이 즐거워진다고 하였으며, 그러한 造語의 妙 중에서도 蘇東坡의 詩에서처럼 그 색태를 노출시키지 않으면서도 광채를 증가시키는 效果를 다하는 暗謎의 類를 가장 정밀한 磨琢의 결과라 하였다. 星湖는 詩에 있어서 視覺의 效果를 중시하여 繪畫性을 강조하면서도, 지나치거나 천박해서 오히려 造語의 妙를 해치는 것보다는 暗謎의 類 같은 은근하면서도 그 效果를 다하는 技巧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星湖는 前人이 지은 詩文에 대하여 그의 文字 또는 格式을 취하여 고쳐서 별도로 새로운 機軸을 만들어 내는 點化의 技法을 설명하면서, 詩에 있어서는 두어 글자를 加添하고 刪削함으로써 그 詩의 品格이 저절로 달라지기 때문에 詩는 말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하였으며, 詩 描寫에 있어서는 具體性을 얻어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隋煬帝의 詩에, “천만 점의 쓸쓸한 갈가마귀 떼, 흐르는 물이 외로운 마을 돌렸어라.”라고 하였는데, (中略) 그러나 단지 그 점만을 말하고 그 사람이 어느 시각에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 때문에 秦少游는 또 點化하여 柳梢青詞

14) 靑赤白黑, 四方之正色 輝映眩目 詩家以之增光 (中略) 杜甫詩 江碧鳥逾白 山青花欲然 以其紅白在靑碧之間 故其光色益鮮 造語之妙也 (中略) 至東坡則曰 春水蘆根看鷓立 夕陽楓葉見鷓翻 合六物而不露其色 尤見精琢 即暗謎之類也 (星湖舊說, 卷三十, 詩家增光)

에 잡아 넣었는데, 그 詞에 “나그네 외로운 배 하늘 가에, 술이 깨자 갈가마귀 사양에 번득이네.”라고 하였다. (中略) 그러나 또한 갈가마귀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¹⁵⁾

이렇게 星湖는 詩의 描寫에 있어서 具體性을 요구하였는데, 時間과 空間의 완전한 構圖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2. 新意

新意는 詩人이 그의 독자적인 詩의 경지를 개척하는 데에는 필수적인 表現技法이라 하겠는데, 星湖는 剽竊과 蹈襲을 배격하면서 個性的인 表現美를 추구한 詩, 創意에 의한 詩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내가 陶淵明의 靖節集을 살펴보니, 곧 스스로의 創意에서 나온 것이었는데 그 때문에 배우기 어렵다는 것이다. 요즘 세상에서 논하는 詩는 남의 물건을 빌려서 벌여놓기를 빈틈없이 잘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또 어떤 것은 남의 물건을 빌려서 先後가 顛倒되고 本末이 錯亂되게 하니 더욱 가소로운 일이다.¹⁶⁾

이렇게 남의 詩를 借用하여 자기의 것으로 하는 風潮가 만연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詩는 〈自做〉 즉 자신의 創意에서 빚어져야 한다고 하여 新意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李奎報가 白雲小說에서 九不宜體를 설명하면서 拙盜易擒體(서투른 도둑이 쉽게 잡히는 體)를 지적했던 것과 같은 類의 주장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星湖는,

우리나라 사람의 詩에는 古詩의 語句를 蹈襲한 것이 언제나 많은데, 그것이 망령되어 絕唱이라고 전해지기도 한다. (中略) 이런 類가 몹시 많아서, 비록 思齋 金正國과 같은 어진이로도 때로는 이런 累가 있었다.¹⁷⁾

라고 한 데서 보다시피, 주로 剽竊과 蹈襲을 배격하는 가운데 그 반대

- 15) 隋場詩 寒雅千萬點 流水繞孤村 (中略) 然只言其點 不言其人在何時 故少遊又點化 入柳梢青詞云 行人一棹天涯 酒醒處斜陽亂雅 然又不言其雅在何地 (星湖說, 卷三十, 坡詩柳詞)
- 16) 余觀靖節集 即自做出來 所以難學 今之論詩 不過借物而善鋪排無罅漏也 又或有借物 而顛倒錯亂之者 益可笑 (星湖說, 卷二十九, 陶詩自做)
- 17) 東人之詩 每多蹈襲古語 妄傳爲絕唱 (中略) 此類甚夥 雖金思齋之賢 時有此累 (星湖說, 卷二十八, 東詩蹈襲)

개념인 新意를 내세우고 있다.

또한 詩作에 있어서 典故나 사실을 인용함으로써 詩의 意趣를 압축·표현하고 강조하는 表現技法인 用事의 번다함을 지적하면서,

淮南小山이 지은 招隱操에 春草·王孫이란 말이 있는 후로, 詩人들이 이를 본받아 이별하고 돌아오지 못한다는 뜻의 말로 해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사용하였다. 蘇東坡의 別歲詩에 이르러서는, “벗은 천리 먼 길 떠나려는데, 이별해야 할 순간 오히려 머뭇거리짐이여, 사람이야 가도 다시 올 수 있다지만, 세월은 가면 언제 다시 되돌아오랴.” 하였는데, 이는 이별의 뜻은 사용되되 그 말은 쓰지 않았는데도, 말이 더욱 새롭고 工巧하였다.¹⁸⁾

라고 하여, 이미 前人의 詩에 사용된 어휘를 억지로 써서 用事하는 것보다는 스스로의 創意에 의한 詩를 쓰고자 하여, 新意를 指向하고 있다.

3. 換骨奪胎

星湖는 模倣의 表現技巧인 換骨奪胎에 대하여 매우 肯定的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換骨奪胎는 원래 江西詩派를 창도하였던 宋의 黃庭堅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바, 古人의 詩意에 근거하여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하는 것을 換骨이라 하고, 古人의 詩文의 意趣를 더욱 深化하여 자신의 意境으로 造成·表現하는 것을 奪胎라고 한다.¹⁹⁾

星湖는 漢詩가 제한된 五言·七言의 形式에다 人情·物態를 그 素材로 취하기 때문에, 前代의 수많은 작품들과 다른 意趣를 표현해내거나, 새로운 意境을 개척하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라고 하면서,

나는 일찌기 사람들에게 “무릇 詩 치고 陳腐하지 않은 것은 없다. 혹시라도 이것이 옛날에 없었던 것이라 한다면, 그야말로 우물안 개구리가 하늘 이야기 하는 격이다”라고 말하였다. (中略) 저 充棟汗牛의 서적 같은 것에 이르러서

18) 自招隱操 春草王孫之後 詩人祖此 爲贈別不返之語 不勝其繁多矣 至東坡則別歲詩云 古人過千里 臨別尙遲遲 人行猶可復 歲行那可追 用其意 而不用其語 語更新巧矣(星湖德說, 卷二十九, 別歲)

19) 換骨是意同語異 用前人的詩意 再用自己的言語出之 奪胎是因前人的詩意 而更深刻化 造成自己的意境(中國文學發達史, p. 670.)

는, 누가 일일이 검토하고 고증할 수 있으랴? 그러므로 詩 짓기는 어렵지 않다. 이를 모방하여 끌어낸다고 하면 잘 되지 않을 리도 없다. 後世의 詩는 모두 이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²⁰⁾

라고 하여, 古人의 詩를 模倣하는 일은 陳腐한 일이기는 하지만 新意를 創出하기란 실로 어려운 일이어서, 後世의 詩人들은 어쩔 수 없이 前代의 詩를 模倣하여 짓게 되고 또 模倣에서 비롯되기는 했어도 좋은 詩가 나올 수도 있었다고 하여, 作詩에서의 模倣의 修辭方法을 인정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黃庭堅을 위시한 宋의 詩人들이, 古人의 詩文을 援用하는 用事의 경우에 그것이 模倣으로 변하기 쉬웠던 까닭으로써, 換骨奪胎의 修辭法으로 模倣의 형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경우와 마찬가지로의 생각이라 할 것이다.

星湖는 또한 換骨奪胎하는 方法을 설명하면서, 그러한 방법에 의한 詩는 새로운 意境을 그려내기 전에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고 하였다.

하루는 아이들과 詩를 論하면서, 시험 삼아 換骨奪胎의 法으로 數聯을 만들어 보았다. 이룰때면 陶淵明의 詩, “春水滿四澤 夏雲多奇峰”이라 한 데서, 水·澤·雲·峰은 實字이고 나머지는 모두 虛字인 것이다. 이에 虛字는 남겨두고 實字만 바꾸어서 “春陰滿四野 夏樹多奇化”라 하였고, 實字는 남겨두고 虛字만 바꾸어서, “流水歸成澤 晴雲逗作峰”이라 하였다. 지금도 陶淵明의 詩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확실히 巧拙·眞眞의 구별이 있다 하겠다.²¹⁾

이렇게 換骨奪胎의 法으로 詩를 지었으면서도, 陶淵明의 詩와 비교하여 볼 때 그 詩的 가치에 있어서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는 앞서 인용한 〈陶詩自倣〉에서 본 바와 같이 陶淵明의 詩가 자신의 創意에서

20) 余嘗語人曰 詩莫非陳腐 或以爲古無者 井蛙之談天也 (中略) 至若充棟汗牛之篇 誰得以攻取哉 故作詩非難 倣此率擗 未有不能得之理 後世之詩 盖滔滔是也 (星湖德說, 卷二十九, 奪胎換骨)

21) 一日與兒輩論詩 試依奪胎換骨法 成數聯 如陶詩 春水滿四澤 夏雲多奇峰 水澤雲峰 是實字 餘皆虛字 乃存虛而換實曰 春陰滿四野 夏樹多奇花 又存實而換虛曰 流水歸成澤 晴雲逗作峰 今與陶詩較看 固有巧拙眞眞之別矣 (上同)

나왔기 때문에 훌륭한 詩라고 하여, 新意를 주장했던 그의 태도로 보아 당연한 것이라고 하겠다.

星湖는 換骨奪胎를 模倣의 技巧으로써 인정하기는 했어도, 결과적으로 그 詩의 價値의 면에 있어서는 비판적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4. 鍊 琢

漢詩에 있어서, 近體詩의 엄격한 定型性을 지키면서 詩的 效果를 높이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詩語의 鍊琢이 필요하다 하겠다. 詩的 感情을 뛰어나게 表出해내기 위한 詩語의 雕琢·鍛鍊은 언제나 詩人들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 왔으며, 단순한 用字·用句보다는 苦心의 結晶인 鍊字·鍊句에 노력함은, 詩人들의 보다 세련되고 보다 나은 詩的 表現에의 욕망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星湖는 지나친 詩語의 鍊琢은 煩辭나 虛飾에 치우치는 결과를 빚기도 한다고 말하고 있다.

오직 그 用意함이 더 넓어진 까닭으로 세상이 점점 巧細해져서 組織과 藻繪가 이르지 못함이 없게 되었다.²²⁾

이렇게 詩經 三百篇은 四言을 위주로 하였어도 그 뜻을 자유롭게 펼 수 있었는데, 五言·七言으로 변하면서 오히려 쓸 데 없는 技巧에만 빠져서 아름다운 말을 만들기에 급급하게 되는 폐단이 생겼다고 하였다.

또한 <凡務出奇說 驚動人者 必內存不足也>²³⁾라고 해서, 詩語의 지나친 鍊琢이 오히려 思想과 感情의 부족을 초래하는 일이 있음을 경계하였고, <造語非不工 綴風神寂寥>²⁴⁾, <語非不工 儼有不遜之意>²⁵⁾라 하여 비록 詩語가 工巧하고 緻密하다 해도 그 내용이 性情의 溫柔敦厚함을

22) 惟其用意恢如 故世漸巧細 組織藻繪無所不至(星湖僊說, 卷二十九, 詩家藻繪)

23) 星湖先生全集, 卷五十五, 盤巖集跋.

24) 星湖僊說, 卷二十八, 松都夢詩.

25) 星湖僊說, 卷二十八, 吊古戰場詩.

잃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이를 단순히 詩經精神에의 추종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과도한 수식과 조탁으로 인해 詩가 말장난으로 타락해버리는 경향을 막고, 內容의 충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엄격한 近體詩의 定型性을 지키면서 詩의 效果를 높이기 위한 노력의 하나인 鍊琢의 過程은 星湖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관심사였다고 생각되며, 다만 星湖는 말단의 기교에만 치중하여 詩의 품위를 상실하거나 난삽한 詩語들만 나열하여 內容 없는 詩를 量産하기에 급급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오늘날의 일부 詩人들에게도 示唆되는 바 크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星湖의 作詩論 중 가장 뚜렷하게 제시되어 있는 表現·修辭, 新意, 換骨奪胎, 鍊琢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四. 批評論

詩의 價値나 美感 그리고 詩의 技巧 등에 관한 합리적 판단과 평가인 詩批評에 대한 星湖의 견해는 作家論과 作品論으로 각각 나누어서 살펴볼 수도 있겠으나, 本稿에서는 그의 批評의 樣相 중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있는 특징만을 두 가지로 간추려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星湖는 論詩 또는 評詩로 불리는 詩批評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한 批評活動의 어려움을 〈信乎 評詩之難矣〉,²⁶⁾ 〈信乎 論詩之難〉²⁷⁾이라 하여, 詩를 論하고 評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詩를 論評하는 자세에 대하여,

혹시라도 자기의 사견에 의거하여 함부로 詩의 淺深을 따진다면, 어찌 하루살이가 큰 나무를 흔드는 격에 비할 뿐이겠는가.²⁸⁾

26) 星湖體說, 卷二十九, 僻寐

27) 星湖體說, 卷二十八, 二李金剛詩

28) 或據己見 而妄議其淺深矣 譬如蟬撼大樹也(星湖體說, 卷二十九, 杜韓詩)

글을 읽는 자는 모름지기 그 肯綮(근육과 뼈가 결합된 곳으로 가장 중요한 곳인데, 여기서는 문장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살펴야 할 것이다.²⁹⁾

라고 하여, 아무런 합리적 기준도 없이 제멋대로 詩批評에 임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그 詩文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올바른 批評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星湖批評의 특징은 源流批評과 作品 外的인 요소에 의한 비평의 배경 등의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1. 源流批評

星湖의 星湖僿說·詩文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비평의 유형이 源流批評이다. 이는 學詩의 源流를 찾거나 同一한 美意識의 根源을 찾아 作家와 作品을 評價하는 批評方法이다. 또한 감상자나 작가로 하여금 先人の 학문 수양과정이나, 작품의 內容·形式에 대하여 그것을 系譜的으로 파악하게 하고, 나아가 歷代詩學의 성쇠나 前後 作家간의 高下優劣을 입체적으로 이해시켜 스스로 詩學原理를 터득하게 하는 方法이기도 하다.

星湖는,

詩를 볼 때 모름지기 그 源流를 찾아서 그 높고 낮음을 차별하면 의미가 더욱 깊어진다.³⁰⁾

라고 하여, 자신의 批評方法을 직접 나타내주고 있다.

이제 그 批評의 形式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詩經 三百篇이 詩의 큰 根源이 된다는 것은 어찌 믿을 만한 일이 아니겠는가.³¹⁾

鄭知常의 赴學詩는 본래 唐의 韋承矩에게서 나왔다. (中略) 尹孝孫의 詩는 宋人 李清臣의 詩에서 나왔다.³²⁾

29) 讀書者 須看其肯綮(星湖僿說, 卷二十八, 范藁傳)

30) 看詩須尋其源流 差其高下 意味益深(星湖僿說, 卷三十, 李杜所祖)

31) 三百篇之爲大源 豈不信然(星湖僿說, 卷二十八, 詩源)

32) 鄭知常赴學詩 本出於唐韋承矩(星湖僿說, 卷二十八, 東詩蹈襲)

관서 李峯의 詩는 대개 盧仝의 馬異와의 結交詩에서 나왔으나, 點化 역시 아름답다.³³⁾

杜牧의 재주가 李白을 가장 깊이 悅慕하는 대상으로 삼았다.³⁴⁾

韓退之는 일생을 두고 李白과 杜甫를 사모하여 본받았다.³⁵⁾

이와 같이 星湖는 學詩의 源流를 찾거나 同一한 美意識의 根源을 찾는 등의 源流批評의 方法에 주력하였던 것이다.

이는 앞에서 星湖儻說·詩文門의 특징을 밝히면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詩 內容의 考證에 힘쓰는 星湖의 학문적 태도와 견주어 볼 때, 星湖에게는 가장 적합한 批評方法이었다고 생각된다.

2. 作品 外的인 요소에 의한 批評의 배경

星湖의 詩批評에서 또 하나의 두드러진 樣相을 찾는다면, 作品 外的인 요소에 의한 批評을 철저히 배격하고 있다는 점이다. 星湖는 詩批評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詩 자체의 예술적 가치를 중심으로 논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詩 外的인 요소로 詩를 평가하는 일반적인 경향에 대한 駭단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명망에 따라 사람을 보고 사람에 따라 文章을 보는 그 駭단은 어느 때나 마찬가지인 모양이다.³⁶⁾

그 사람됨은 죽히 말할 것도 없지만, 이 詩(朴鼎吉이 金應河 장군을 두고 지은 挽詩)만은 만 사람의 입에서 송전되고 있으니, 사람이 보잘것 없다고 해서 詩文까지 없앨 수는 없는 것이다.³⁷⁾

世道가 아침·저녁으로 번복이 되니 黑白이 서로 다투지만, 사람의 처음의 善을 끝의 惡으로써 덮어버릴 수만은 없을 것이다. 하물며 詩인이 贈酬한 詩에 있어서라. 이 詩(白洲 李明漢이 李爾瞻에게 贈別한 詩)의 詩語가 매우 아름답으니, 역시 없애버릴 수는 없을 것이다.³⁸⁾

33) 李詩蓋出於此 而點化亦佳 (星湖儻說, 卷二十八, 異同同)

34) 牧之才思 最於白爲深悅 (星湖儻說, 卷三十, 天外鳳凰)

35) 韓退之一生慕效李杜 (星湖儻說, 卷三十, 退之效李杜)

36) 因名觀人 因人觀文 其獎滔滔焉耳 (星湖儻說, 卷二十八, 前軻子貢傳)

37) 其人無足言者 然此詩流傳萬口 不以人廢言也 (星湖儻說, 卷二十八, 朴鼎吉詩)

38) 世道朝暮翻覆 黑白交爭 成人有始善 不可以終惡而掩之 況詩人贈酬者耶 詩語

이렇게 星湖는 詩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詩 자체의 예술성이나 美的 가치로써 평가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많은 詩人들이 學詩의 模範으로 삼고 있는 杜甫의 詩나, 朱子의 詩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잘못된 점은 그대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杜甫의 詩가 귀절 귀절마다 내력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반드시 다 그렇지도 않다. 다만 詩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리저리 끌어다서 傳會한 것이니, 때때로 가소롭기도 하다. (中略) 뒷사람들이 공연스레 천착하여 깊이 보게 된 것이다.³⁹⁾

朱子의 迅雷詩에 “어느 누가 神斧로 頑陰을 부수었고, 땅이 젖기고 산이 열리니 귀신은 숲을 잃었어라. 나의 소원은 君王께서 天造를 본받아, 영단 내려 여러 마음에 보답했으면.” 하였는데, 당시로 말하면 나라에 道가 없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역시 말을 공손히 하는 氣像은 모자란다. 後人들이 극도로 존송하는 인물이라 하여 망령되이 본받으려고 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는 이른바 태양의 증세가 입을 충격시켜 발동한 것이 아니겠는가.⁴⁰⁾

이와 같이 星湖는 詩批評에 있어서 어떤 先入觀이나 詩外的 요소에 의한 평가를 배격하고, 반드시 詩 작품 자체의 가치 평가에 주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五. 結

이상에서 星湖詩論의 諸樣相을 검토하였는데, 이제 다시 한번 요약해 가면서, 그 文學史的 意義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① 星湖는 詩의 本質이 詩의 效用性을 바탕으로 하는 風教 곧 社會教化에 있다고 파악하였다. 詩의 本質을 詩機能의 측면에서 인간의 教化

甚美 亦不可沒 (星湖傳說, 卷三十, 李白洲詩)

39) 人謂杜詩 句句有來歷 今觀未必盡然 只是釋者 旁掩曲引以傳會之 往往可笑 (中略) 被後人鑿教深看 (星湖傳說, 卷二十九, 一水香)

40) 其迅雷詩云 誰將神斧破頑陰 地裂山開鬼失林 我願君王法天造 早施雄斷答群心 當時可謂邦之無道 亦欠官孫氣像 後人不可以尊之之極而妄效之 殆所謂太陽之症衝口發者哉 (星湖傳說, 卷三十, 朱子詩)

를 위한 것으로 보는 견해는 載道的 文學觀 아래에서 이루어진 東洋의 傳統的인 詩觀이며, 이것은 또한 당시의 현실적 모순들을 바로 잡기 위해 社會改革意志를 강력히 내세웠던 星湖의 학문적 태도로 보아 당연한 것으로 생각된다.

② 星湖의 作詩論은 매우 다양한 樣相을 보여주고 있는데, 詩의 美的 성공여부를 결정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表現・修辭의 문제에 있어서는 寫實性和 繪畫性 그리고 具體性 등을 특히 강조하였다. 또한 단순한 모방이나 표절을 배격하면서, 詩의 독창성을 강조하는 新意를 중시하긴 했지만, 古人의 詩文의 형식을 약간 바꾸어 意趣를 새롭게 하려는 모방의 기교인 換骨奪胎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이는 漢詩의 제한된 形式에다 새로운 意趣를 表出해내는 것이 실로 어려운 일임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詩의 效果를 높이기 위한 鍊琢의 過程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데, 너무 지나쳐서 과도한 修飾과 雕琢에 탐닉하는 폐단만은 없어야 한다고 했으며, 나아가서는 性情의 溫柔敦厚함이 詩에 나타나야 된다고 하였다.

③ 星湖에게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批評方法은, 學詩의 源流를 찾거나 同一한 美意識의 根源을 찾아 作家와 作品을 평가하는 源流批評의 方法이었다. 이는 평생을 학문에만 몰두하면서 모든 학문에 있어서 考證의 태도를 중시하였던 實學者로서의 星湖에게 가장 적합한 비평방법이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作品 外的인 요소들에 의한 비평을 배격하고, 詩批評에 있어서는 반드시 詩 작품 자체의 가치평가를 위주로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제 星湖詩論의 文學史的 意義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① 星湖傳說・詩文門은, 詩話가 쇠퇴한 英・正祖代의 朝鮮後期에 나타난, 詩話로서의 性格을 완전히 갖춘, 詩學研究의 중요한 자료다.

② 星湖는, 高麗朝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古典詩學을 계승하여, 자신의 詩論을 다양한 樣相으로 전개하였는데, 그러한 星湖의 비평적 업

적은 文學史에서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朝鮮後期에 뛰어난 비평적 업적을 남긴 文人들 중의 하나인 星湖를 批評家로서 새롭게 평가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앞으로 남은 문제는 序論에서 밝힌 바와 같이 星湖文學의 전반적인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다. 특히 星湖의 詩論과 詩評이 1,200餘首의 그의 詩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詩人 또는 文人으로서의 星湖의 眞面目을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